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6년 3월 13일(금)		
담당 부서	스마트정책실	담당자	•스마트정책팀장 김현주 ☎880-5920 •담당 주무관 홍성관 ☎880-5919	
사진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미추홀구, 아동·어르신 대상 스마트 화상교육 서비스 본격 운영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역아동센터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복지 서비스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화상교육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지난해 ‘스마트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올해 3월부터 양방향 화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는 실시간 화상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해 원도심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VR(가상현실) 체험기와 스마트 운동 놀이 기계를 활용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여가복지시설 30개소에는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건강 체조, 여가·문화 프로그램, 건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화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스마트헬스케어 기계와 인지훈련 장비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난 12일 미추홀노인복지관 화상교육 스튜디오를 방문해 양방향 화상교육을 참관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했으며, 스마트 디지털존 현장을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화상교육 기반 스마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교육·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 복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